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D^+	3	2.60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D^+	1	0.430
	(3) 안전 및 환경	2	C	1	0.934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	C	3	2.966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3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4.376
	(3) 삶의 질 제고	1	C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2	1.783
주요 사업	1.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1) 예술창작지원 성과			9	8.604
	(2) 예술인력 취업 성과			4	4.000
	2.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1)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10	10.000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2	1.869
	3. 문화예술 후원사업				
	(1) 기부문화 확산 및 후원확대			4	3.174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C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합계		**51**		**47**	
가점	1. 혁신성장	1	0.6		
	2-1. 혁신우수과제		0.000		
	2-2. 협업우수과제		0.000		
	2-3. 시민참여우수과제		0.600		

1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20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한다는 기관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전과 핵심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핵심가치 보완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은 문화예술이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으면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과 문화의 기본가치에 충실하면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지향을 가지고 창의, 나눔, 확산 등 기존의 핵심가치에 공공성을 추가하여 핵심가치 체계를 일부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 구축, 예술가 창조열정 뒷받침, 미래예술에 대한 지원, 국민과 함께 하는 예술, 사회적 가치경영의 실현 등 5개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등 비전전략 체계를 재조정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 기관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문화 예술계의 불신이 상존하는 외부적 위협요인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정책체계와 관행이 지속되는 내부적 약점요소 등을 인식하고 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문화 예술계의 참여에 기초한 위원회 구조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활용하여 사회현안과 미래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에서 전략체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추된 기관의 위상과 신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의 인사가 광범위하게 포함된 아르코 혁신 TF를 구성하고, 혁신의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 인정된다.

- 또한 예술생태계 선순환구조 확립, 문화나눔 사업 고도화, 예술가치 대외확산, 전략적 추진기반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에 따라 9개의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9개의 전략과제와 23개의 혁신과제가 분명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정렬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들 가운데 우선순위, 동시추진, 분리시행 등의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술위의 국가 예술위 전환, 예술위의 공운법 제외, 예술위 독립성, 자율성 보장 등의 의제는 기관의 경영전략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통해 전략과제와 혁신의제를 체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추진 상황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연도별 추세에 따른 목표치 설정 외에도 전략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수단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방향성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예술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과정에서 정규직 취업인원이 25명(2018년)에서 32명(2019년)으로 증가할 때 실제로 예술 생태계에서 예상되는 변화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해 보다 적절한 사업수단과 성과에 따라 향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경영개선

- 기관은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도출하고자 아르코 혁신 TF를 구성하고, 미래전략 소위원회, 소통혁신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경영혁신 조직을 운영하였다. 미래전략 소위원회는 혁신의제 내재화와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관 경영방침 선정 등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통혁신팀의 경우에는 FGI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미래전략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장 소통위원회를 통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과제후보군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활성화 등의 과제를 선정하는 성과가 인정된다.

- 새롭게 발굴된 신규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을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중계와 국제예술 공동기금 조성 등 신규사업등의 발굴은 적절한 성과로서 인정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을 제고하고 예술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새로운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적절한 신규사업이라고 판단된다.

- 기관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관전략, 기관경영, 사업수행 등의 분야를 진단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여 경영혁신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5년 독임제 체제에서 합의제 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술위원회-문체부 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에 있어서 예술위원회-예술현장과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관의 자율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문체부와 관계, 예술현장과의 관계 등과 같은 외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본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예술위원회 체제의 취지를 살리는 운영상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기관은 지원심의 과정에서 사용되던 OCR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시간적 소요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시스템이 적용된 16개 사업심의에서 훨씬 짧은 시간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심사자간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개선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기관이 이러한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도입된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늦은 편에 속한 것으로, 시스템의 운전 및 보안등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공고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3) 리더십

- 기관장의 경영계약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관은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과제 후보군을 도출하여 그 가운데 경영계약 과제를 선정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하였다. 과제로 선정된 2개의 과제는 과제 후보군 6개를 2개로 통합한 것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현장의견 반영, 소위원회 활성화, 공모 사업운영 혁신 등 기관의 경영과정 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여 기관의 경영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책임있는 조치로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였다. 이 밖에도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전략회의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회의 생중계와 회의 녹취록 공개 등의 방식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현장을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의 전문성을 정책수립 및 기관 운영,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사들에게 국내외 지원정책 동향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참여의 활성화, 이사회 참석률 제고 등을 위해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안건 수정 과 경영제언 확대와 그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2018년 기간 동안 2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6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대부분의 안건을 사전심의 하도록 준비하였고, 그 가운데 16.2%가 수정의결 되는 등 심의·토론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비상임 이사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메뉴얼 제공,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 이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B^0”로 평가한다.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86.933%	86.933	3	2.608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세부평가항목을 집계한 결과, 평점 86.933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3점에 2.608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만 34세 이하 청년채용, 청년인턴 및 이전지역 인재채용 노력으로 전년도 평점 98.571점과 유사한 수준인 97.143점을 획득하였다.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간접고용(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확정인원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전년도 평점 100점에서 90.625점으로 하락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에 대한 실적이 미흡하여 전년도 평점 33.220점에서 16.838점으로 하락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1	90.625	0.906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1.7	97.143	1.651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0.3	16.838	0.051
계	**3**		**2.608**

라. 추세분석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 신규 도입된 지표로, 2017년은 가중치 1.5점에 1.500점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은 가중치 1점에 0.906점을 획득하였다.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2013년 가중치 0.7점에 0.700점, 2014년 가중치 1.3점에 0.764점, 2015년 및 2016년 가중치 0.7점에 0.595점, 2017년 가중치 0.9점에 0.887점, 2018년 가중치 1.7점에 1.651점을 획득하였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2013년 가중치 0.4점에 0.400점, 2014년 가중치 0.5점에 0.050점, 2015년 및 2016년 가중치 0.3점에 0.180점, 2017년 가중치 0.5점에 0.166점, 2018년 가중치 0.3점에 0.051점을 획득하였다.

【비계량 부문】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이의 지속가능성 담보측면에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전환대상자 대표들의 협의체, 전임직원과 함께 하는 전사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며, 기관장과 사무처장 간담회를 통한 변화환경설명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등 일련의 변화된 제도의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재원확보노력 및 고용의 질 개선과 성과관리체계 구축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현원차 해소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직대체인원을 통한 정현원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알리오상의 현원기준 정현원차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 및 활용현황 관련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의 활용과 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연평균 초과근무시간은 42시간('16년), 43시간('17년), 41시간('18년)으로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인당 시간외 근로수당은

965천원('16년), 908천원('17년), 1093천원('18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 업무의 증가로 인한 초과근무가 증가하고 있고, 일인당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액은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력과 절감재원마련을 위한 일자리 창출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나눔을 구현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실적부족으로 기관의 노력들이 재원절감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실적을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정규직 전환과정이 이루어지고 결과의 합리성 확보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별 소통창구마련과 사내 게시판을 통한 전화협의자료 및 결과를 공유하고 전임직원에 대한 열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노노 갈등없는 정규직 전환과정을 추진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된다.

- 민간예술분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중심의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문화예술계 근로여건의 공정성 및 안정성 제고노력과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전도적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실질적인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여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사회 및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문화 개발 추진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인정된다. 민간단체와의 일자리 협력성과와 컨설팅 및 홍보협력노력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성과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제고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43.000%	43.000	1	0.43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각 평가항목을 집계한 결과 평점 43.000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1점에 0.43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최소기준인 0.7에 미달하여 전년도 평점 100점에서 0점으로 하락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인원 대비 채용실적이 부족하여 전년도 평점 100점에서 90점으로 하락하였다.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부문별 평가 내용 중 '입찰공시 근무인원 명시(20%)',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20%)', '고용승계 및 유지조항 포함 여부(20%)'에서 해당 평가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시중노임단가준수여부(40%)'에서 부분 준수(20%)로 평가되었다. 이는 용역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시중노임단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함에 따른 결과이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0.500	0.000	0.00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0.300	90.000	0.270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	0.200	80.000	0.160
계	1		0.430

라. 추세분석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2013년 가중치 0.3점 대비 0.300점, 2014년 및 2015년 가중치 0.3점 대비 0.090점, 2016년 가중치 0.5점 대비 0.500점, 2017년 가중치 0.5점 대비 0.300점, 2018년은 가중치 0.5점 대비 0.000점을 획득하였다.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2013년 가중치 0.5점 대비 0.400점, 2014년 가중치 0.5점 대비 0.500점, 2015년 가중치 0.5점 대비 0.200점, 2016년 가중치 0.5점 대비 0.450점, 2017년 가중치 0.3점 대비 0.300점, 2018년 가중치 0.3점 대비 0.270점을 획득하였다.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2017년 신규 도입된 지표로 2017년, 2018년 모두 가중치 0.2점 대비 득점 0.160점을 획득하였다.

【비계량 부문】

- 전형단계별 차별요소배제를 위한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 체계고도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채용과정 투명성 및 부정합격자 처리 및 채용비리피해자 규제 등의 인사관리 규정개정을 통해 공정채용기반을 마련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서류전형부터 외부위원 과반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결과 채용시 외부면접위원 위촉 부적정 및 평가점수 합계오류 등으로 인해 주의를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 및 지역인재 채용제도개선과 채용인원 확대를 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 체험형 인턴제도 확대운영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제고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가점제 운영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인 것은 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사회형평적 채용노력을 위한 다양성이 부족하여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제도의 운영 등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채용에서 승진까지 양성 차별없는 인사제도운영과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직군의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고졸자의 연봉이 일정기간 후에 대졸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안전 및 환경 평가결과	목표부여	100%	93.419	93.419	1	0.934

나. 평가내용

-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20%)'와 '녹색제품구매실적(80%)'을 집계하였다.

- 평점 93.419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1점에 0.93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2018년 67.095점으로 2017년 85.462점보다 감소되었다. 2017년은 아르코예술극장 리모델링 공사(2017.4.17.~11.17)에 따른 냉난방 미가동으로 실적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2018년은 연중 냉난방 가동에 따라 실적 감소 요인이 있었다.

-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200	67.095	0.134
녹색제품 구매실적	0.800	100.000	0.800
계	**1**	-	**0.934**

라. 추세분석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2017년 85.462점 대비 2018년 67.095점으로 감소하였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7년 100점, 2018년 100점을 획득하였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 및 전기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담당의 주요업무가 시설 및 전기 안전 관리로서 직제상 명확한 업무분장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안전관리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종합실행계획(제출계획은 12월에 수립)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간이 매뉴얼을 작성한 것은 바람직하며 차후에는 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난업무분장에 따른 개인 맞춤형 대응매뉴얼 작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 소속 시설을 사용하는 스태프 및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무용수 대상 재활 및 복지지원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정보보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은 2019년도 후반기에 채용을 예정하고 있다. 기관은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심사·분석하여 완성도를 점검하였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를 통하여 기관 정보보안 업무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체 내부 보안감사를 통하여 미흡사항을 도출하여 개선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평가에서 80.42점,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전년도 보다 상승한 44.80점을 획득하였으나 평가결과가 강소형 기관 평균 수준이거나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어 정보 관련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중소단위의 적극적 교육 제고 및 정보담당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관련 평가결과가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되어 구성원 스스로 정보보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환경보전을 위한 추진과제 및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환경보전 개념이 도출되지 않아 LED 조명 교체 및 1회 용품 사용 자제 등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하고 있다. 기관의 고유 업무가 대국민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고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98.9%	98.850	3	2.966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 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 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세부 평가항목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평점 98.850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3점에 2.966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구매부분 전체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만점을 달성하였다. 만점을 달성하지 못한 기술개발제품은 기준치인 10%를 상회하는 10.33%를 달성하였으나, '18년도 구매액(133백만원)이 '17년도 구매액(1,156백만원) 대비 하락하여 향상도 부문에서 득점이 감소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중소기업생산품	1.0	100	1.000
기술개발생산품	0.2	82.75	0.166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0.4	100	0.40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0.3	100	0.300
여성기업생산품	0.4	100	0.400
장애인생산품	0.5	100	0.500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0.2	100	0.200
재정조기집행			
계	3		2.966

라. 추세분석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2018년 가중치 1.0점 기준으로 1.000점을 획득하였다.

-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2018년 실적은 가중치 0.2점에서 0.166점을 달성하였다. 2016년, 2017년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으나, 2018년에는 평점 82.75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2018년 가중치 0.400점 대비 0.400점을 달성하였다.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실적은 2016~2018년 가중치 0.300점 기준으로 0.300점을 달성하였다.

-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2018년 가중치 0.400점 기준으로 0.400점을 달성하였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2018년 가중치 0.500점 기준으로 0.500점을 달성하였다.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2018년 가중치 0.200점 기준으로 0.200점을 달성하였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지역혁신경제연대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체계적인 지자체 및 지역기업 지원 및 협력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업체 구매 노력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을 때 성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업무협약도 구체적이고 성과도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체결했을 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평창올림픽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빛가람 문화제 등 지역개최 문화행사에 인력 등을 지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불공정 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 표준계약서 개발 협력, 청렴계약제 개정 등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체결,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모든 입찰에 전자입찰제 도입 등의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입찰기준이 3천만 원으로 비교적 높아 아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표준계약서 체결 비중이 높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지급금 지급비율을 70%로 확대하고 지원심의 옴부즈만 및 공정심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에서는 예술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무대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공연예술 관계자 대상 시연회 개최로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2개 단체의 공연 확정 및 유통판로 확대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해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 공연의 해외 유통을 지원하고 해외 공연장에 진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차후에는 유관단체들이 구매 및 발주 등 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보조금 지원 우대 선발 등의 노력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에서는 정부권장정책 구매실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총 구매액 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어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기관은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윤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부 및 감

사부에서 실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의 비윤리적행위 신고를 위하여 익명부패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운영하여 신고자의 익명성과 편익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관의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하여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시횟수와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교육 시간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교육 외의 내재화 노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인사평가 및 승진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 지표를 통한 승진포인트제 실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외부전문가 주도의 사업성과 평가 비중 확대 등의 노력을 하였다.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수립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기록물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문서는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화되고 있다.

-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강소형 기관 평균 수준인 3등급으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종합청렴도 5등급,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원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구성원들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게 각종 처분을 내렸다. 또한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특별점검,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결과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감사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관련 전문성 강화교육을 이수하였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인력을 부서 및 개인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감사업무가 더욱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성원들의 윤리경영 관련 자율준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윤리업무 가이드북, 윤리과제 제도 운영, 윤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을 하고 있으나 이 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자가 실행을 요구하는 제도 도

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여 인권경영 정책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하고 성과평가부에서는 인권경영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고충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운영이 시작되지는 못하였다. 고충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절차의 익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피해자) 구제 절차 내에 정형화된 단계별 신고자 보호제도가 수립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에서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전문가 교육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기에 향후에는 교육 횟수와 강의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인권경영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시설운용 측면에서 대관 단체 성폭력 예방 및 상해 보험 가입 추진과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

- 기관은 전략목표로 ‘예술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 문화나눔 사업 고도화, 예술가치 대외 확산, 전략적 추진 기반 조성’ 등 4가지를 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제 9개, 혁신의제 23개를 설정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조직체계를 모색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기관장 리더십의 불안정으로 조직개편, 인력배치

등이 지연되었다. 특히, '17년 말 전임기관장 취임 이후 민관협치조직으로 아르코 혁신 TF를 구성하고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방향을 도출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기관장의 유고로 '18년 말까지는 개편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주요사업별로 단위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고 주요지표를 지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임시조직 운영으로 당면 현안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18년에는 정상적인 단위조직의 역할 설정과 책임 조정이 수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18년 상반기 아르코 혁신 TF, 하반기 소통혁신팀 운영을 통해 향후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 운용개편 방향을 도출한 것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

- 기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문화진흥(주) 뉴 서울 CC를 출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출자회사는 '고객 확보 노력 강화,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 다각적 수익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관리 방향으로 설정해서 이에 대해서 중점추진과제와 실행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8년 내장객 수 153,694 명, 매출 199억 원, 골프의류 직영매출 5.1% 상승 등을 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46억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이 인정된다.

- 기관은 기존에 인적자원 개발이나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17~'18년도 에 걸쳐 이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일률적 외부위탁 교육을 지양하는 한편, 지방 이전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효율적 이수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토대로 '예술행정 직무전문성 강화, 사회적 가치와 공적책임 실현, 기초 문화예술소양 강화교육'을 중점추진한 것은 적절한 인적자원개발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1인당 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 참가인원이 적은 편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 기관은 정부기조 및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존 조직평가지표상 부서별 평가지표 난이도가 달라 공평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다. 개인별 평가지표의 경우 MBO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기반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역량평가 시 직상급자와 차상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평가단 평가비율을 확대하였으나 이의신청 건수는 오히려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기관은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12월 개방형 계약직도입을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으나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여서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개방형 계약직에 적합한 직위선정까지 마친 만큼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인사 일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공운법 제39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결측처리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기금운용평가 결과 활용	목표부여	100%	87.516%	87.516	5	4.376

나. 평가내용

-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계량평가와 「자산운용 체계, 정책 및 집행」에 대한 비계량평가를 합하여 평가한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최종 평점은 전체 100점

중 87.516점으로 최종 득점은 4.376점이다.

다. 항목별 원인

①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

-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체계가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조직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중장기 자산 배분을 위해 자산배분 시나리오별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중심으로 평균-분산 최적화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기자산 및 중장기 자산의 만기별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지침에 명시하여 준수하고 있다.

② 자산운용 집행

- 외부 위탁투자기관 사후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외부 위탁투자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펀드 점검, 월별 운용보고서 징구 및 외부전문기관 활용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대한 주기적 정기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및 조치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③ 자산운용 성과

- 중장기 자산을 채권형(60%), 주식형(21%) 및 대체투자(11%)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8 회계연도에는 공격적인 운용전략을 통해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 이 덕분에 타 기금보다 높은 절대 및 상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위험자산 성과지표와 운용상품 집중도 또한 우수하여 전반적인 운용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016년도와 2017년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던 부실자산 회수 실적이 2018년도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으로 2018년 당해연도에도 '탁월' 등급을 획득하였으며(2015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탁월' 획득), 단기자산의 수익률에 있어서도 2014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2014년 단기

자산 수익률 평가 '미흡' → 2015년도 '양호' → 2016년~2018년도 '탁월').

라. 추세분석

- 연기금 투자풀 제도 활용, 자산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추구 및 부실자산 효율적 관리 등 노력의 결과,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85.85점 및 92.63점을 획득하였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수익률 개선노력이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각각 89.476점과 87.516점을 획득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3) 삶의 질 제고

- 기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특성상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극장 스텝 및 운영 인력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통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6월부터 제도를 운영해 극장운영 관련 분야의 근로환경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 본 제도개선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부여제도 도입과 관련해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관련 제도의 실행을 위하여 육아시간 활용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2019년 3월부터 현재 8명이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관 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별도로 개선하지는 않았으며 2019년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응대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직무가치에 기반을 둔 보수체계 설계를 위해 노사공동 선언문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행과정으로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 및 보상체계 개선 연구'를 2017년 10월~2018년 3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물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직무분석 과정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직무평가 과정에서 부서별 대표자 40명이 참석해 평가 작업을 진행한 과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노사는 2018년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논의하며, 개선안의 최종 확정과 시행일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해 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관의 직급 간, 직급 내 연공성 완화, 임금밴드 상한선 설정, 직무와 보수의 연계 등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아 예산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1인당 복리후생비도 2017년에 비하여 19만원이 감소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복리후생비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기관의 복리후생제도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실적과 관련하여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집행금액 차이는 해당 제도의 수혜자(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년/명예 퇴직자 기념품 등)유무에 따라 발생한 것임이 확인된다.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하나인 복리후생제도 발굴

을 위한 노력을 요구받아 나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복지제도 협의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유하였으나, 직접적인 복리후생 제도개선(특히 비금전적 복지제도 확대)을 위한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1개 직무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나 추후 이 직무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다양한 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3년차에 월 50만원까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추후 외부 교육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전직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2.6% 이내	2.362%	10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전기 대비 당기 인건비 인상률의 정부 예산관리 기준(2.6%이내)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 2018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2.362%로서 정부 예산관리기준의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가중치 3점 대비 3.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퇴직 및 신규입사자, 승진 등 월별 인원변동에 따른 증원소요인건비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별도직군 승진시기 차이에 따른 인건비 효과 예측 등 인건비 인상요인을 변수로 적용한 통합시뮬레이션을 통해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관리하여 총인건비인상률 목표치 2.6% 이내인 2.362%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3년 2.8% 대비 1.178%, 2014년 1.7% 대비 -0.065%, 2015년 3.8% 대비 2.108%, 2016년 3.0% 대비 2.110%, 2017년 3.5% 대비 3.198%, 2018년 2.6% 대비 2.362%로 매년 정부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노사관계

- 기관의 2017년도 보수체계는 수당의 일부를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이를 평가등급에 따라 고성과자에게 성과연봉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본연봉 또한 수당의 일부를 환원하여 고성과자에게 추가 인상분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지나친 성과주의를 조장하여 직원 간의 협업을 방해하는 등 직원의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2018년도에 전 직원 동일한 기준의 기본연봉 인상 및 성과연봉 지급을 우선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기존에 조성되었던 성과연봉(경평성과급 제외)을 기본연봉에 산입하고 Zero-Base에서 보수체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고, 노동조합도 이에 동의하였다.

- 실무교섭(노사협의회 등) 과정에서 노측에서는 2018년도 정부 임금인상률 2.6% 중 1.6%만 인상 적용하되, 전 직원이 동일하게 인상하는 안을 수용하였고, 사측에서는 보상재원 1%를 확보하고 지급방식을 노측으로부터 위임받았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임금인상률 중 일부인 1.6%만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성과연봉이 기본연봉으로 산입됨으로써 변동성 급여의 비중은 축소되고 고정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전 직원이

동일하게 1.6%가 인상됨에 따라 기본연봉 차등 인상에 따른 직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였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보상재원 1%를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하게 되었고, 지급방식을 기존 최고-최저 등급 간 2배에서 4배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설계할 수 있었다.

- 기관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간담회, 단체교섭 등을 통해 노사 간의 소통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연 스태프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나무숲을 통해 직원 간, 노사 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 역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3분기와 4분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 노동권 보호 인식제고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자, 인사노무 담당자, 부서별 담당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층별 노사관계 교육과정을 확대해 운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그 대상이 협소하고 교육과정 역시 단발성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추후 교육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 기관은 전략목표와 정합성이 높은 6개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기관 설립목적에 충실한 혁신활동을 통한 예술행정의 신뢰회복과 건강한 예술생태계 복원’을 혁신목표로 설정하였다. 혁신목표의 3대 방향으로는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

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회복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중 경제패러다임전환 선도 내의 일부과제는 기관의 전략목표나 혁신목표와 잘 부합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서 2017년 말 부임한 전임기관장이 민간예술인이 참여하는 아르코 혁신TF를 구성토록 지시하였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정부기관 최초로 공식 인정 및 사과하는 등 혁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기관장이 지병으로 3개월 만에 사퇴하였고 '18년 11월 초 신임기관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 등을 통하여 혁신의지를 표명하였다. 결국, '18년 대부분의 기간 기관장이 공석이었고 11월 초 부임한 현 기관장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기에는 '18년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문화체육부 및 예술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2개년에 걸쳐 3단계 혁신조직을 구성하고 혁신과제를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혁신과제의 중심이 되는 아르코 혁신TF 23대 혁신의제는 중장기성 과제가 많아서 '18년의 이행성과는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르코 혁신TF 해산 후 새로운 혁신 추진조직으로 소통혁신팀이 만들어졌으나,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의제 일부를 이행한 후 해체되었다. 이후 정책혁신부와 기획조정부로 혁신업무가 이관된 것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구축 노력으로 간주된다.

- 기관은 문화예술 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 소통단 민간위원을 모집하였다. 또한 예술계 공론화 의제 선정절차를 확립하고 공식적인 참여/소통 창구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설하였다. 기관 혁신방향에 대한 소통채널을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채널로 운영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보여지나 혁신관련 위원회가 너무 많고 소통활동들이 일회성 행사나 단방향 소통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 기관은 대내외 혁신네트워크를 지역기반, 유관기관, 내부구성원의 세 부분으로 구성해서 구축하였으며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주요제안을 기관의 운

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중일 국제문화 협력, 대한민국 연극제 및 한국연극협회의 불투명한 행정과 공적자금관리, 예술 창작지원 및 공모사업에 공정 보상체계 도입' 등이 주요제안으로 접수되었고, 기관은 이들 제안에 대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여 개선한 성과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기관은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서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관 홈페이지와 기재부 알리오 경영공시 및 기관자체 SNS를 통해 기관 경영정보를 개방하였다. 또한, 기관지원 사업정보의 개방을 통해 지원사업의 관객이 될 국민에게 공연/전시 정보 제공을 강화하였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연 생중계의 경우 작품당 평균 2,570회의 뷰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혁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온 국민의 차별없는 문화생활 여건 조성, 위원회의 대의 민주주의 정립체계 재정립, 문화예술 분야의 선도적 조직운영 모델구축과 확산'을 주요과제로 추진하였다. 통합문화 이용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혁신, 현장 예술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운영체계 재건,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육아휴직 사용율 및 정규직 퇴직율 감소 등은 과제 추진의 성과로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노력 및 성과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 점검	목표부여	벌점 0점	벌점 0점	1	1	1
고객만족도	목표부여	100%	고객만족도 : 77.313	0.783	1	0.783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후, 구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총 벌점 0점으로 가중치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득점하였다.

-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주관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하는 지표이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7.3점으로 전년대비 5.8점 하락하였으며, 상대등급은 B등급(등급 점수 3점)이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 결과, 평점 0.783점으로 가중치 1.000점 중 0.783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전년도에 발생한 과실이나 오류 등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벌점 0점 목표를 달성하였다.

-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6개의 세부사업(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소외계층문화순회, 문화예술후원사업,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에서 '서비스 완결성'과 '이용자 환경 편리성' 점수가 기준 점수 대비 낮아 개선 필요요소로 도출되었다. 지원사업 선정과정, 2017년도 도입된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에 대한 불만이 점수 하락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라. 추세분석

- 경영공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성실공시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2015년 벌점 21점, 2016년 벌점 8점, 2017년 벌점 3.5점)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벌점 0점으로, 가중치 1,000점 기준 1.000점을 달성하였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2015년 78.3점, 2016년 74.9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2017년도에 83.1점으로 상승하였다. 2018년도 실적은 77.3점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2 주요사업

○ 기관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2018년도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생활 속 예술 활성화사업', '문화예술 후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주요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도출하였고, SWOT 분석을 토대로 8개의 세부사업 및 17개의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기관은 주요사업별 성과지표를 3S 기법과 외부 현안 반영 및 기존 과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 기관은 PDCA 절차에 따라 각 주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예술시장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과 그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예술창작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예술작품의 유통 및 확산, 그리고 예술인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고, 생활 속 예술 활성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문화소외지역을 포함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반 구축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기부촉진과 기부금 집행관리체계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다만, 주요사업 중 일부는 성과지표의 체계성이 부족하며,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별 목표를 고려하여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지표는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에 따른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실적 산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술창작지원 성과' 지표의 경우, 지원작품의 양적 유통 성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원작품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지표의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에 따른 성과를 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수로 설정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프로그램 참여율 또는 만족도 등의 결과지표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1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1) 예술창작지원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frac{\text{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작품 유통건수}}{\text{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예산}} \times 0.8 + \frac{\text{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제출 사업 수(건)}}{\text{연간 예술창작역량강화 선정사업 중 문화예술용역 사례비가 지급된 사업 수(건)}} \times 0.2$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세부 득점	지표 득점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00414 최저 : 0.00137	0.00395	94.494	7.2	6.804	8.604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목표부여	최고 : 44.335% 최저 : 29.557%	78.032%	100.000	1.8	1.800	

나. 평가내용

- 예술창작지원 성과 지표는 ①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와 ②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실적을 평가하는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각각 목표부여(편차)와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는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 예산 1백만원 당 지원한 작품의 유통실적 건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2018년도 실적은 전년도 0.00275(건/백만원)보다 상승한 0.00395(건/백만원)을 달성하여 최고 목표수준 0.00414(건/백만원) 대비 94.494점으로 평가하였다.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실적은 문화예술용역 사례비가 지급된 사업 수 중 서면계약서 제출 사업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2018년 실적은 전년도 36.946%에서 크게 상승한 78.032%를 달성하였다. 최고 목표 수준 44.335%를 상회하여 평점 100.000점으로 평가하였다.

- 위 결과를 토대로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득점을 8.604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창작(제작) 단계를 지원한 예술작품(창작물)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유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작품 창작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창작산실사업 등) 국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창작(제작) 지원 작품이 외부의 초청을 받거나, 작품의 판권이 판매되는 등 유통 실적이 전년 125건 대비 대폭 늘어난 189건을 달성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는 45,383백만원에서 47,832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실적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규정 정비 등 노력을 기울여 서면계약 체결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라. 추세분석

-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는 (2014년) 0.00085건/백만원→(2015년) 0.00142건/백만원→(2016년) 0.00155건/백만원→(2017년) 0.00275건/백만원→(2018년) 0.00395건/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실적은 (2017년) 36.946%→(2018년) 78.032%로 큰 폭의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예술인력 취업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당해연도) 예술단체 정규직 취업실적(명) / (전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육성지원 사업비(백만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예술인력 취업성과	목표부여(편차)	최고 : 0.00549 최저 : 0.00478	0.00738	100.000	4	4.000

나. 평가내용

- 예술인력 취업 성과는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연수단원 지원 사업비 1백만원당 예술단체 정규직 취업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18년도 실적은 전년도 0.00514(명/백만원)보다 상승한 0.00738(명/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고 목표 수준인 0.00549(명/백만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어 평점 100.00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연수단원 활동 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교육, 정규직고용장려금제도)노력을 기울여 29명의 전환 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사업비가 전년도 4,478백만원에서 3,927백만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정규직 전환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은 연수단원 활동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

라. 추세분석

- 예술인력 취업 성과는 (2014년) 0.00504명/백만원→(2015년) 0.00468명/백만원→(2016년) 0.00483명/백만원→(2017년) 0.00514명/백만원→(2018년) 0.00738명/백만원으로 2015년에 일시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1)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결제 점포 수 득점×0.3) + (전국 순회대상처 방문공연 프로그램수(건) / 순회사업 예산(백만원) 평점 ×0.7)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세부 득점	지표 득점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2,574.484 최저 : 12,305.516	13,853	100.000	3	3.000	10.000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282 최저 : 0.188	0.285	100.000	7	7.000	

나. 평가내용

-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지표는 ①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와, ②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를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 지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이용결제가 완료된 점포수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018년도 실적은 전년 실적인 12,440개에서 크게 향상된 13,853개로서 최고목표 수준 12,574개를 상회하여 평점 100.000점으로 평가하였다.

-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실적은 순회대상처 방문공연의 프로그램 확대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2018년 실적은 전년 실적인 0.235(건/백만원)을 상회하는 0.285(건/백만원)으로서 최고목표 수준 0.282(건/백만원)을 상회하여 평점 100.000점으로 평가하였다.

- 위 결과를 토대로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득점을 10.00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 지표의 경우, 신규 가맹점 개발, 이용자에 대한 가맹점 점포 정보 제공 확대,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가맹 점포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에 힘입어 결제 가맹점 점포수가 전년에 비해 1,413개소가 증가하여 11.4%의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는 수요자(소외지역 및 계층)와 참여 예술단체를 권역별로 매칭하고 사업예산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전년대비 985건(20.6%) 향상된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증가 지표는 (2014년) 12,389개→(2015년) 12,277개→(2016년) 12,294개→(2017년) 12,440개→(2018년) 13,853개로 2015년 소폭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는 (2014년) 0.213(건/백만원)→(2015년) 0.209(건/백만원)→(2016년) 0.170(건/백만원)→(2017년) 0.235(건/백만원)→(2018년) 0.285(건/백만원)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실적이 하락하였으나, 2017년 이후 향상 추세에 있다.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연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으로 지원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수(개)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 : 35.568 최저 : 16.432	34	93.443	2	1.869

나. 평가내용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확산 지표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으로 지원받은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18년도는 전년도 26개보다 8개 증가한 34개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최고 목표수준인 35.568개에는 미달하여 평점 93.443점, 득점 1.869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사회적 경제 및 단체 지원 강화 방향을 적극 홍보하고, 문화순회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예술단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8개 단체가 증가한 34개 단체를 선발, 문화순회 사업에 참여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숫자는 (2015년) 15개 → (2016년) 17개 → (2017년) 26개 → (2018년) 34개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3 문화예술 후원사업

(1) 기부문화 확산 및 후원확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지표의 득점×0.6 + (민·관 협력 기부프로그램 성공 건수지표의 득점×0.4)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세부 득점**	**지표 득점**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 43.008 최저 : 22.992	35	67.994	2.4	1.632	3.174
민·관협력 기부 프로그램 성공 건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 41.000 최저 : 19.000	40	96.364	1.6	1.542	

나. 평가내용

- 문화예술후원사업은 ①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와 ② 민·관 협력 기부프로그램 성공 건수를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와 협력하여 추진한 문화예술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성공 건수를 측정하며, 2018년도 실적은 전년도 33건 대비 2건이 상승한 3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고목표 수준인 43.008건에 미달하는 실적으로서 평점 67.994점으로 평가하였다.

- 민·관 협력 기부프로그램 성공 건수는 전년 30건 대비 10건이 상승한 40건을 달성하였다. 이는 최고목표 수준인 41.000건에 미달한 실적으로서 평점 96.364점으로 평가하였다.

- 위 결과를 토대로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후원확대 지표의 합산 평점을 3.174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는 전년도 33건 대비 2건이 증가한 35건을 달성하였다.

프로젝트 당 최소 기부 참가 참가인원(40명) 기준을 신설하고 기관이 마중물(Seed Money)역할을 위해 초기에 지원하는 매칭 금액의 비율을 축소(30%→25%)하는 등 내실을 우선하는 사업방향에 영향을 받아 성공 건수 면에서는 소폭의 증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 민·관 협력 기부프로그램 성공 건수는 메세나협의회, 민간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데 힘입어 전년도 30건 대비 33.3% 증가한 40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향상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사회 전반적인 민간기부 추세 등을 감안 할 때 협력 기관 및 단체 발굴, 다양한 협력 사업 개발 등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 추세분석

-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는 (2013년) 22건→(2014년) 30건→(2015년) 20건→(2016년) 23건→(2017년) 33건→(2018년) 35건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 민·관 협력 기부프로그램 성공 건수는 (2014년) 17건→(2015년) 30건→(2016년) 29건→(2017년) 30건→(2018년) 40건으로 2016년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예술 창작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 및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였고, SWOT 분석을 토대로 주요사업별 추진전략과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예술 창작역량 강화사업과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과 사

업의 중요성을 적절히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요사업 간 정책 중요도와 사업별 예산 분배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인 차원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관의 자원 분배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주요사업, 세부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후보군(Pool)을 개발·구축하였으며, 3S 기법과 외부 현안 반영 및 기존 과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지표 검증 및 선정을 하였다. 다만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지표 선정과정의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계량·비계량 목표 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비계량 목표치의 도전성 및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유통연계, 시장확대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고도화하고 국제적 진출과 교류 지원의 확대를 통한 예술작품의 유통·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각 분야에서 다양한 온라인 홍보방안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접근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문학 집필 공간의 입주실적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진출과 교류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신진예술가 발굴 및 육성사업 개선, 해외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개선, 예술 일자리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예술인력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신진예술가에게 맞는 지원심의 트랙 운영을 통해 신진예술가 및 단체의 선정비율을 확대시킨 것과 신진작가 작품 유통을 확대한 것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직접 일자리 지원을 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에 대해서는 10개월의 지원사업 후 후속 지원 방안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기금지원심의제도 전면 개편과 공정경쟁, 포용성을 반영한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지원심의제도 개편 사업을 추진하였다. 장애인 단체 또는 예술가의

공연횟수 쿼터제 도입으로 공연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공정경쟁과 포용성을 반영한 지원방식의 개선은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심의위원 후보단을 예술현장 추천으로 100% 구성함으로써 실효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지원심의제도 개편을 위하여 연간 심의 횟수를 제한하는 심의총량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0회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 1인당 심사제한 횟수가 여전히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율은 2015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표준계약적용은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계량 성과지표로 창작물(창작지원작품) 유통 건수, 국제 공동기획 프로젝트 건수, 연수단원 지원인력 중 정규직 취업 인원수, 창작지원사업 중 서면계약서 체결사업 수를 제시하였다. 창작지원사업 중 서면계약서 체결 사업수의 경우 지원심의 및 지원조건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방향 홍보와 이행관리를 통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이외의 계량지표 역시 목표 수준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비계량 성과로 창작 이후 유통확산단계 지원체계 고도화, 신진예술인력 육성과 일자리지원방식 고도화,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전면 개편, 성폭력 예방의무 지원조건 신설, 창작자 적정보수(아티스트피) 제도 신설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비계량 성과지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티스트피 제도의 현실 반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역시 추가적인 개편을 통한 제도적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비계량 목표치가 명확하지 못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점이 존재하므로, 비계량 성과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실적으로 공연예술 온라인·모바일 기반 활동 제고, 공연계 근로여건 개선, 심의방식 다각화를 통한 지원·심의 제도개편을 제시하였다. 특히 예술작품의 유통·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모바일 기반에서 전년 대비 조회 수 증가를 가져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연계 근로여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심의방식 제도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전년도 외부지적사항에 대해 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으로 예술가 주도의 실험단계 창작 활동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청년예술가 창업 및 취업 여건개선을 위해 예술인력육성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입장벽이 높은 장애인과 신진·신생단체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장애인 단체 공연횟수와 대관 선정 신진예술가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세부 사업별로 사회적 가치가 균형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실행계획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생활 속 예술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 및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였고, SWOT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사업별 추진전략과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생활 속 예술 활성화사업과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적절히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역문화재단들의 급

증으로 인한 위협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주요사업 간 정책 중요도를 비교하였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배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주요사업, 세부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후보군(Pool)을 개발·구축하였으며, 3S 기법과 외부 현안 반영 및 기존 과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지표 검증 및 선정을 하였다. 다만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지표 선정과정의 체계성이 부족하며 계량·비계량 목표 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며, 비계량 목표치의 도전성 및 구체성이 미흡하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결제 점포 수는 계량지표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인문정신 문화향유 기반과 대표사업 개발, 예술향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인문정신문화 향유활동 지원 통합포털서비스(인문360°)의 개선,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개선, 인문·예술 융합프로그램 시범 개발을 수행하였다. 특히, 통합포털서비스의 개선으로 인한 방문자 증가 및 이용자 평가점수 상승은 우수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 참여 인력을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은 대상지역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술주간 전용 철도패스 '미로랑'의 저조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 확대와 이용도 제고,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금액과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거동취약계층을 위해 케이블TV, 워터파크, 캠핑장 등 사용처 신규가맹점을 2,630개 발굴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통합문화이용권은 발급 기준이 있는 카드이므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보안에 대한 절차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거동 취약계층에 대한 발급률 증

가를 위해 찾아가는 모바일 발급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지역주민 문화향유 거점 공간 기반 문화향유프로그램 지원 강화, 주민참여 및 지역예술가 중심 자생적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문화 소외지역 문화향유 증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한 문화 소외지역 대상 향유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예술가 중심 문화향유 프로그램(소규모순회) 추진은 우수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 기반 문화 프로그램의 질과 참여도 상승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계량 성과지표로 인생나눔교실 사업 수혜자 만족도, 문학 주간행사 온라인 참여 건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결제 점포 수, 공연 나눔 사업 수혜자 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량 성과지표 중 문학주간행사 온라인 참여 건수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그 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결제 점포 수와 공연 나눔 사업 수혜자 수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다. 다만 계량지표 중 인생 나눔 교실사업 수혜자 만족도, 문화 순회사업 수행 단체 중 사회적 경제 단체 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비계량 성과로 인문·예술향유 시범사업 신규개발 및 확산,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공공미술사업 추진방식 고도화를 선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비계량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여 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점이 존재하므로, 비계량 성과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실적으로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여율 개선,

통합문화이용권 할인가맹점 및 이용률 확대, 6개 권역별 지역 중심 예술단체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소외지역 문화향유증진을 위한 소규모순회 사업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취약계층 문화향유증진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은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통합문화이용권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전년도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환류활동의 일환으로 노인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의 향유 편의성 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바일 발급 서비스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전년대비 발급률과 이용률의 상승 실적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의 타연령대 대비 노년층 발급률 및 이용률이 여전히 낮으므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사업 보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전화 재충전 도입과 담당자가 이용자를 찾아가는 모바일 발급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소외계층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지역연구를 통한 특성 파악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 자생력을 제고하고, 주민·작가 공동작업 미술작품 설치 등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 공공미술 사업 모델을 개발한 것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세부 사업별로 사회적 가치가 균형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문화예술 후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 및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였고, SWOT 분석을 토대로 주요사업별 추진전략과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선정

된 문화예술 후원사업과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적절히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요사업 간 정책 중요도를 비교하였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배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주요사업, 세부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후보군(Pool)을 개발·구축하였으며, 3S 기법과 외부 현안 반영 및 기존 과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지표 검증 및 선정을 하였다. 다만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지표 선정과정의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계량·비계량 목표 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비계량 성과지표가 한 개에 불과하고 비계량 목표치의 도전성 및 구체성이 미흡하고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예술단체 자생적 모금역량 강화 및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 민간-공공 협력형 후원사업 강화를 통한 기부유치, 문화예술분야 기부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 후원 촉진 및 개발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의 모금 캠페인 '예술나무운동' 중장기 추진전략 재수립을 통한 현장 캠페인 확대 추진과 고액후원자 모임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기업 문화마케팅 및 문화경영 교육을 통해 문화접대비 금액의 증대 뿐만 아니라 전체 접대비 대비 문화 접대비 실적을 증가시킨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개인 소액모금 참여 후원자 수뿐만 아니라 소액기부금액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부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분야 사업은 아직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관리시스템 신설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후원(기부)금 재원 집행관리체계 효율화를 하고자 하였다.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부금 후원 및 지원 절차 간소화와 기부금 관련 통계의 정확성 향상을 가져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부금 투명성과 기부금액 확대를 위해서

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정기 후원금 수혜자 선정 역시 공정하고 다양한 추천 제도의 확립을 통해 사회 각층의 다양한 후보를 선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계량 성과지표로 크라우드 펀딩 성공 건수, 민-관 협력 기부사업 성공 건수, 기부참여자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계량성과지표 중 민-관 협력 기부사업 성공 건수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와 기부참여자(기부자, 수혜자) 만족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그 규모에 대한 지표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부참여자 만족도의 경우 전년 대비 지표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부참여자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홍보·마케팅 방법에 대한 근원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비계량 성과지표로 후원모금/기부금관리시스템 신규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부자와 수혜자의 VOC를 반영하여 문화예술 기부 관리의 투명성 강화, 업무 간소화, 그리고 편의 증대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량 성과지표가 3개인데 반해,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지표가 1개로서 다양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목표치가 명확하지 못하여 성과 달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실적으로 공익광고 노출 및 홍보대사 활용 홍보 확대를 통한 대국민 캠페인 확산과 고객니즈를 반영한 기부금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부금 사업 관리의 투명성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환류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부금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류활동이 필요하고, 기부 활성화와 자체 크라우드 펀딩 증가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홍보·마케팅 분야에 좀 더 환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전년도 외부지적사항에 대하여 기부 유치액 증가, 기부자별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사업개선 추진, 파트너십 구축 및 기부문화 조성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질적 성과 관리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는 전년도 지적사항인 '문화예술 후원사업의 질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개선 모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다소 미흡하므로, 적절한 지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⑤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민간-공공 협력형 지원사업 체계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소액기부 참여형 기부문화 조성의 경우 문화예술계 모금역량의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개인 기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사회적 가치가 균형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총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에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후원사업' 등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기관은 추진사업을 통해 예술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시장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여 이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주요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전략과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중장기적인 목표 수립의 부재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예술창작지원 성과' 지표는 기관의 우수예술 창작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창작물 유통확대 성과 세부지표의 경우, 지원작품의 양적 유통 성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원작품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서면계약서 체결 확대 세부지표의 경우, 기관의 지원사업이 400여건에 불과하고 기관의 지원사업만이 아닌 국내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률 제고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 '예술인력 취업 성과' 지표는 기관의 예술인력 양성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예술인력 양성 노력을 관련 분야 취업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당해연도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약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취업 성과가 29명에 불과함에도 고득점을 획득한 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 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육성지원 사업'의 취지가 문화예술기관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의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취업실적 이외에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지표는 기관의 문화나눔사업의 국민참여 확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세부지표의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에 따른 성과를 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수로 설정한 것은 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며, 프로그램별 객석점유율이나 프로그램 만족도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율 또는 만족도를 지표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문화

이용권 활용 증가 세부지표의 경우, 측정 산식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결재 점포수로 설정하였으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액과 같이 통합문화이용권의 활용 증가를 직접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지표는 소외계층 대상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지원한 사회적 기업수로 평가하는 것은 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취지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지원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문화예술 후원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기부문화 확산 및 후원확대' 지표는 기관의 기부문화 확산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화예술 후원사업의 성과를 크라우드펀딩 성공과 민관협력 기부프로그램의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크라우딩펀딩 성공건수와 민관협력 기부프로그램의 실적 산정 범위가 명확치 않아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에 의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실적 산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총평

- 전반적으로 기관의 주요사업은 양적 성과 위주로 평가하도록 지표를 구성하였고 해당 지표와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에 따른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실적 산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혁신성장 가점

○ 기관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창작개발 플랫폼 운영 등의 혁신성장 촉진 노력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인정된다. 하지만 기관의 주요사업을 8대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혁신성장

①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혁신기술을 융합한 창작개발 플랫폼 '예술 해커톤' 운영하여 9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은 혁신성장 수요 창출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성과로 제시한 공연예술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은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문화 예술계 분야의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②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 성과로 제시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서비스 개선 사항 도출 등은 기관의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혁신기술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혁신기술과 연계하여 주요사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공공데이터 전략적 개발 및 유통 노력을 통해 약 38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의 혁신사업 발굴 기회를 제공한 것은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성과로 제시한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기관의 실적은 대부분 기관이 추진하던 기존 사업의 성과로 판단되며,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기관의 성과가 부족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혁신성장 가점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